

할 일을 안 하고 편하게만 살면 인생 망한다

본 문 로마서 12장 11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방향을 먼저 말씀해 주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편하게만 사니 결국 망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서 말하면 자기 할 일을 두고 안 하고 편하게만 사니, 편하기 위해 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결국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게으러서 할 일을 두고도 안 하고, 편하게만 시간을 보냅니다. 열심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현실에서도 미래에도 ‘희망’이 없어집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①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최대한 자기를 편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고로 모든 시간을 편히 보내려고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인데도 힘들다고 안 합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편한 길로 가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 편하기, 자기 기뻐하기, 자기 좋아하기’ 삶을 질주하며 삽니다.

② 자기가 편안하려고 꼭 들어야 될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들으면 행해야 되니까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안하려고 꼭 봐야 될 것도 보기 싫어합니다. 보면 해야 되니까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편안히 먹고 놀고 자는 안일주의 삶입니다.

③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사니,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전도하려면 같이 놀아 줘야 되고, 세상처럼 편하게 해 줘야 교회도 편안한가 생각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영상1> (재연 등으로 실감 나게 설교 내용에 따라 세세하게 제작)

- ① 편안하게만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 / 안일주의의 삶
- ② 꼭 들어야 될 말도 안 듣고, 봐야 될 것도 안 본다.
- ③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니 전도하기도 힘든 것 표현

실상 이 시대 역사로 와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자기가 할 일을 하면, 육도 영도 마음도 결국 영원히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편해야 다 편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육신이 고생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으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① 현재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면서 편안하면, 현재와 미래에 고통이 옵니다. 편안한 삶이 가난하게 만듭니다. 육신이 편하게만 살고, 육신에 해당되는 운동을 안 하니 병든 자가 됐습니다. 육도 마음도 편하게만 하니 육도 굳어 버리고, 마음과 생각과 뇌도 메마르고 굳어 버렸습니다. 편안함이 결국 고통이 됐습니다.

② 고로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 안에서 살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살라.” 하셨습니다.

<영상2>

- ① 편안하게만 사니 육적으로도 병들고, 영적으로도 병든 모습
- ② 열심히 뛰고 달리는 모습 - <자막>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

사람은 편하려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 결국 육도 영도 사망 주관을 해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편하려고 새벽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깨우셔도 눈만 뜨지, 안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고 또 자면 육신의 실상대로 꿈에서도 고통으로 가게 됩니다. 육과 영이 사탄에게 쫓기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건으로 갑니다.

자기에게 100% 행할 능력이 있어도 편하려고 70%만 행합니다. 그러니 결국 그 영도 육도 항상 그 주관을 못 벗어나고, 나머지 30%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됩니다. 편하게 사니 구원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삽니다.

편하게 살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고, 실천도 안 하고, 관리도 한두 번 해 주고 맙니다. 고생돼도 매일 자기를 말씀과 기도로 관리하고 생명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에도 미래에도 근본적인 편안함이 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역사로 와서 따라도 편안하게 안일주의로 살면 그 영혼이 영원히 편치 못한 곳으로 가고, 육신도 세상에서 살 동안에 현재에도 미래에도 근본의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새 시대 섭리역사는 짧은 시대이니 편안한 시간이 오거나 편안한 것이 있어도 걷어차고, 고생돼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편안함을 걷어차고 고생돼도 행하자!” 하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① 나그네가 먼 길을 가다가 그늘 밑에 앉아 있으니 편하다고 해서 편하게 쉬다가는 갈 길을 못 가고 어둠을 맞게 됩니다.

② 재림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재촉하시고 독촉하시니 진수성찬을 차려 주며 대접받게 되었어도 외면하고, 영원히 가야 될 길을 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고 주를 따라갈 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뜻을 이루고 창조 목적을 이루는 성약 섭리역사로 온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영상3>

① 나그네가 길 가다가 편하다고 계속 쉬다가 어둠을 맞는 모습

② 진수성찬이 우리 앞에 차려져 있는데 주님이 앞에서 재촉하시는 모습 → 이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번개 치듯 순간 하고 끝나는, 천사장이 나팔 불고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그 한 날을 기다리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날에 주님을 맞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 그 날에 주님을 맞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는 것은 알고 행하면 쉽습니다. 할 일을 안 하고 편하게만 살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신앙’은 그 시대 사명자의 말을 듣고 메시아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시니 그 육으로 쓰는 사명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육을 통해 마음에 있는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듯, 주님은 오늘도 하고 싶은 말씀을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전초로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더 깊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4>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나 예수가 왜 “편하게만 살면 인생 망한다.” 라고 말했는지 계속 말씀을 들어 보자. 인생 육과 영의 멘토링을 최첨단으로 해 주련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① 편안하게 눕거나 앉아서 사는 삶과 편안한 것만 찾고 다니며 사는 삶은 인생 80~90세까지 살고 늙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사는 삶이다. 너희가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을 보지 않았느냐. 행복과 부와 명예와 성공, 혹은 가난과 실패를 앞에 두고 있는 너희가 인생 80세 먹고 사는 노인들의 삶을 살면 되겠느냐. 앞날이 창창한 자들이 그같이 살면 되겠느냐. 그렇게 살면 인생 실패하고 고통을 겪게 된다.

② 인생 봄인 사람도 있고, 인생 여름인 사람도 있고, 인생 가을인 사람도 있다. 자기 할 일을 두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말고, 나 예수가 나의 사명자를 통해 말한 시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명자와 같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나 예수를 좇고 전능자 하나님을 섬겨라.

③ 봄 같은 때를 보내는 인생이든지, 여름 같은 때를 보내는 인생이든지, 가을 같은 때를 보내는 인생이든지, 겨울 같은 인생의 때를 보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정한 ‘재림의 때’가 왔다. 온 세상 누구에게나 이때가 닥쳐 이미 진행 중에 있다.

④ 항상 육적인 세계에서 먼저 재림 휴거 역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에서 한다.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영 휴거’를 시키기 위해 먼저 이 세상에서 육 휴거를 진행한다.

⑤ 지금 육 휴거 역사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땅에서 시대 신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나 예수를 사랑하며 산 자들은 육 휴거를 이룬 자들이다. / 그들의 영을 미리 택해 놓았다가, 마지막 ‘영 휴거’라는 열차에 계속 태우고 있다. 그리고 나 예수를 맞기 위해 영이 신부로 예비된 자가 또 있는지 찾고 있다.

⑥ 이같이 육과 영을 변화시키며 땅에서 육 휴거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천사장이 나팔만 안 불었다. 이렇게 땅에서 육 휴거 역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내가 이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나의 말을 행하며 열심히 사는 과정 중에 ‘영 휴거의 날’이 다가온다.

천사장이 나팔 불고 나 예수가 재림할 때 이같이 예비된 영만을 휴거시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다.

⑦ 휴거가 무엇이나. 휴거는 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 이 시대성에 맞게 시대 신부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나를 신랑으로 삼고 사랑함으로 신부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휴거’ 다. 너희 육도 땅에서 이같이 나의 신부로 사는 것이 ‘육 휴거’ 요, 그러므로 너희 영도 변화를 이루어 나의 재림 때 나를 맞아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영 휴거’ 다.

<영상5>

- ① 편안하게 누워서 살고, 앉아서 쉬고, 돌아다니면서 구경만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 부지런히 뛰고 달리며 일하는 젊은이들
- ② <전환> 인생 봄 : 0대, 10대들의 모습 /
인생 여름 : 청년들의 모습 / 인생 가을 : 중년들의 모습
→ 부지런히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 사명자 맞고 사는 모습
- ③ 봄 배경 속에서 노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모습
여름 배경 속에서 노는 청년들의 모습
가을 배경 속에서 노는 중년들의 모습
→ 모두 똑같이 서산에 지는 해를 맞는 모습 (→ 주님 영 재림)
- ④ 천국
 ↑
 지구
- ⑤ 지구가 나오면서 점점 클로즈업해서 들어가며 (육 휴거 도표를 배경으로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인들의 모습 (예배 때나 천성운 때 모습) / 이렇게 택한 영들을 마지막 ‘영 휴거’ 열차에 계속 태우고 있는 모습 /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신부들을 찾는 모습
- ⑥ 초안 참고 (2-1쪽 맨 아래 : 중요)
- ⑦ 해당 영상으로 알기 쉽게 제작

‘휴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는 휴거되지 못한다. 쉽다.

첫째, 휴거되기를 원해야 된다.

둘째, 어떻게 휴거되는지 배워야 된다.

셋째,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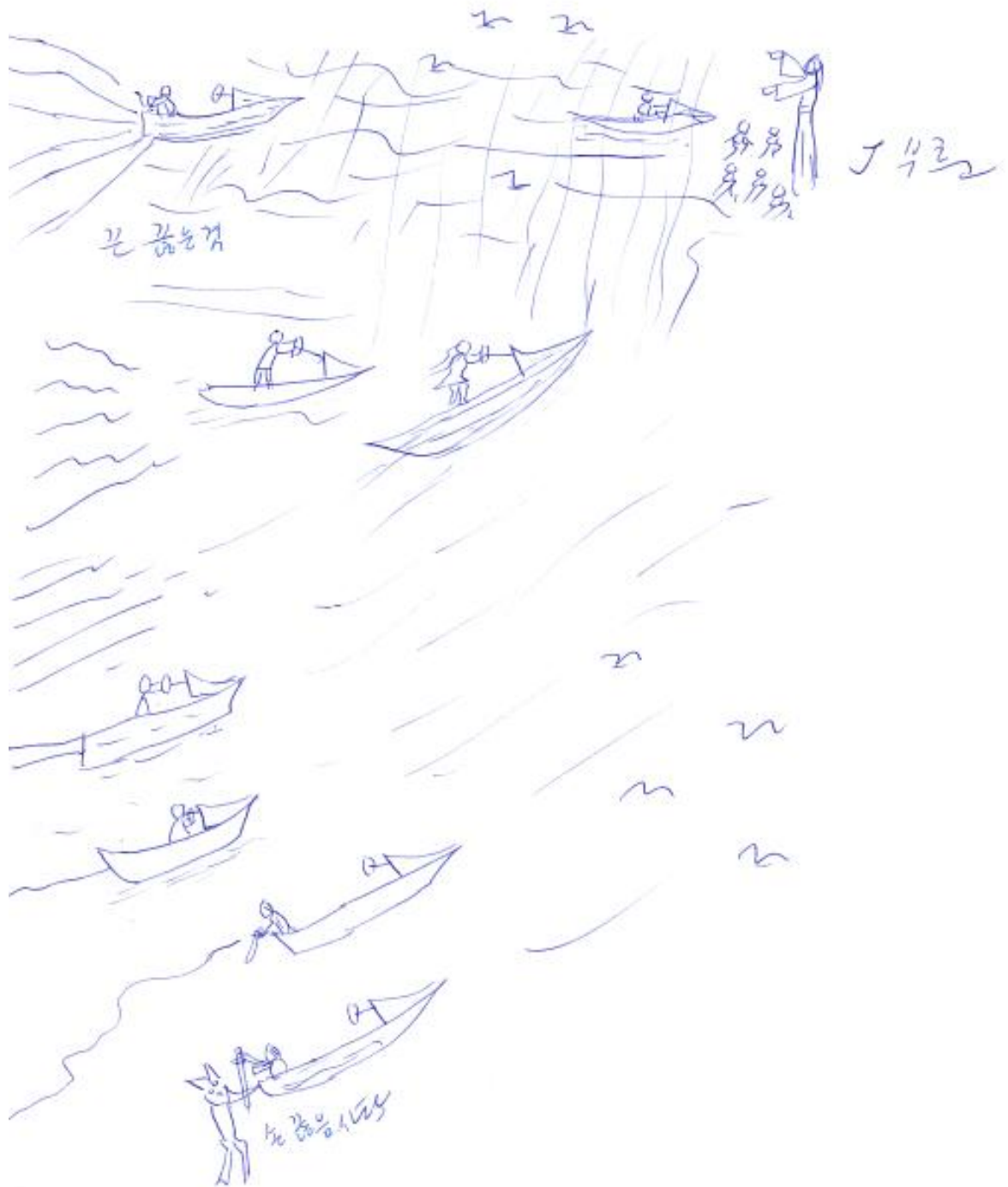
너희는 하면 다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행할 수 있다. 또 아직 순간의 시간이라도 있다. 차 타듯 올라타면, 영 휴거에 예비된 자의 수에 들어간다. 또 나 예수가 너희 모두가 휴거되기를 원하고 이끄니 휴거될 수 있다. 다만 편하게 살지 말고 벌떡 일어나 고생돼도 나의 재림 때까지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 뛰고, 너희 마음을 사랑으로 100% 내게 맡기고 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살 때 전혀 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함께 살지도 않고서, 어떻게 너희 영혼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와서 살 수 있겠느냐. 순간의 연애 기간도 없이 어떻게 결혼하고 살 수 있단 말이나. 세상에서 살 때 나 예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받으며 연애하다가 나 예수가 올 때 너희 영을 데리고 가서 결혼하는 것이다.

내가 강제로 너희를 사랑하고 데리고 가지 못한다. 너희가 나 예수를 100% 좋아하고 사랑하며, 이 시대에 내가 보낸 자를 통해 주는 시대 말씀을 듣고 고생돼도 행하며 나를 맞고 좇아야 된다. 힘들지 않다. 시대의 기준이 되는 중심자 뒤에 줄을 맞춰서 서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① 나 예수가 너희 모두가 휴거되기를 원하니 본인이 원하고, 배우고, 행하며 끊을 것을 다 끊고 가기만 하면 휴거된다. 한 가지만 안 끊어도 그 한 가지에 매여서 목적인 곳에 갈 수가 없다. 자기에게 매인 것을 자기가 끊는 것이니 아주 쉽지 않느냐.



② 마치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여 같이 살기를 원하니까 상대가 되는 여자만 진정 끊을 것을 다 끊고 남자를 100% 사랑하면 같이 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나 예수도 너희가 휴거되기를 원하고 허락했으니, 너희만 세상 모든 것을 끊고 나를 100% 사랑하면 휴거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휴거의 소망이요, 비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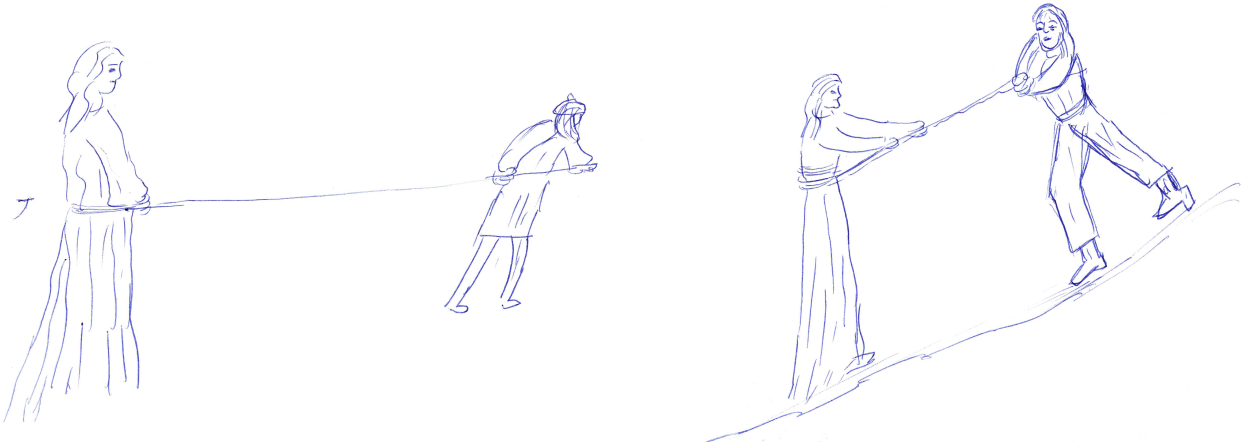
<영상6>

- ①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 배경 : 주님이 앞에서 부르시고, 모두 매인 끈을 칼로 끊고 주님께 가는 모습, 어느 배에 탄 사람은 사탄이 배를 붙잡으니 사탄의 손을 칼로 끊고 주님께 가는 모습 (초안 3쪽 다시 그리기)
- ② 초안 3-1쪽 (초안과 다시 그린 것 사용)

자기 편하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정신 차려서 듣지 않고, 새벽도 안 깨우고, 자기도 형제도 관리하지 않고, 전도도 안 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게을리하는 등 신앙의 모든 일들을 이같이 하면 휴거될 자도 휴거되지 않는다. 자기 편하려고 나 예수를 안 찾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면 절대 안 된다. 진정한 사랑으로 나 예수를 끌고 가는 자는 내 마음이 감동되어 휴거되게 한다.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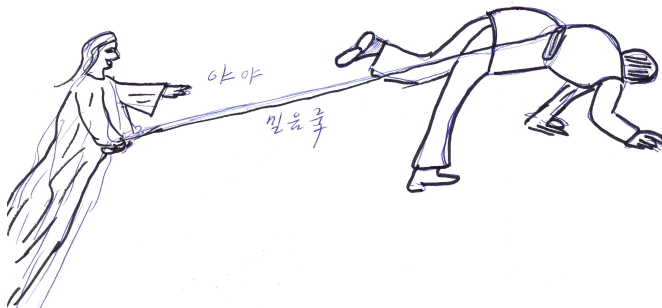
① 그동안 늘 내가 너희를 끌고 다니는 짝사랑을 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1:1로 나 예수를 사랑하는 책임을 하여 각자 사랑의 줄로 나를 매고 끌고 가라.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의 사랑의 한을 풀어 주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라.



② 최선을 다해야 나를 끌고 갈 것이다. 한 손으로는 안 된다. 젖 먹던 힘까지 내서 나를 ‘사랑의 줄’로 매 놓고 끌고 가야 된다.



애인도 못 끌고 가면서 애인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편하게 끌고 가면 끌고 가다가 넘어진다.



내가 포기하고 앉아 있으면 나도 갈 수가 없다. 온몸과 온 마음을 다 하여 너 편하게 말고, 고생으로 끌고 가면 된다.



③ 계속 놓지 말고 끌고 가라. 계속 놓지 않고 끌고 가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말하리라. “너는 나를 진정 사랑하여 한눈팔지도 않고 인생 편하게 살지도 않고 나 예수가 편한 대로 살아 주었으니,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천국까지 갈 것이다. 영혼아, 나와 같이 천국에 가자. 나와 같이 살자.” 할 것이다.

④ 제림역사의 과정 중에 이 세상에서 ‘육 휴거’도 되고, 그같이 살다가 육 휴거의 과정 중에 홀연히 ‘영 휴거’도 된다. 나 예수와 동행하는 중에 너희 영이 하늘로 휴거된다. 나 예수를 이끌고 가야 된다. 자기 편하려고 나 예수를 놓고 가면, 너희 혼자서는 천국에 못 간다. 어떻게 너희 혼자서 천국까지 가겠느냐. 편하려고 할 일 안 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영 휴거가 예정이 된 자가 결국 휴거되지 않는 자들도 많다. 끝까지 하자.

<영상7>

- ① 초안 4쪽 / 초안 4-1쪽 (다시 그리기)
- ② 초안 4-1쪽 (다시 그리기)
- ③ 사랑의 줄로 예수님을 꿰꿰 매 놓고 끝까지 끌고 가는 자에게 주님이 설교 내용과 같이 말씀하시는 모습 (영 휴거시키는 모습)
- ④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맞고 사는 과정 중에 홀연히 천사장이 나팔 불고 주님이 오셔서 준비된 자들의 영을 2차 변화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모습 (하나 더 멋지게 그려서 만들어 놓기)

나 예수의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오늘 말씀을 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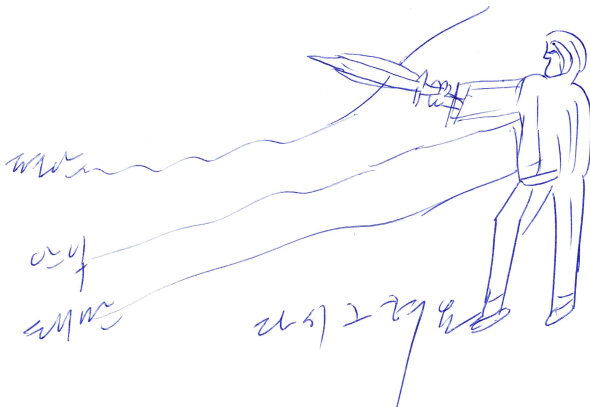
매일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희망으로 살아라. 기도도 정한 시간에만 하지 말고, 이 급한 때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여 너희 정신과 마음을 늘 내게 보내라.

자기가 편하기 위해 세상 오락과 노는 것만 즐기며, 자기에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된 것을 각종으로 행하며 사는 자는 그 육도 영도 사망에 있는 자다. 자기 혁명을 일으켜라. 세상을 끊고, 시대 말씀을 따라 자기가 자기를 옳은 데로 끌고 가야 된다.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성공하려 할 때도 목적을 이룰 때까지 다른 것은 모두 끊고, 오직 목적인 일만 하지 않느냐. 영원한 천국을 상속 받는데, 어찌 그 하찮은 세상의 것들을 못 끊고 천국의 일을 하며 가겠느냐. 편하게만 살려고 하다 보니, 자기 때를 못 지키고 기회를 잃고 슬피 울게 된 것이다.

(*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① 자기 혁명을 일으켜라. 편안함과 안일함과 태만함의 습관과 버릇을 다 잘라라. 그래야 마지막으로 단장한다. 고생해도 생명길을 가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편하게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사는 삶을 모두 사망의 줄을 자르듯 잘라라. 자르지 않으면 그 줄을 타고 사탄이 온다. 오직 고생과 긴장의 허리띠를 띠고 나 예수를 따라라.



② 조금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내 말을 지켜 꾸준히 끊임없이 행하여라. 한 주 하고, 한 달 하고, 1년 하고 말지 말고 꾸준히 하여라. 꾸준히 행하는 자가 현재 위치에서 차원을 높여 사탄 불가침의 세계인 빛의 세계로 나온다.

③ 나 예수의 육으로 보낸 자와 같이 꾸준히 하여라. 부지런하여라. 열심으로 늘 나 예수를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보낸 자와 일체 되어 살기 바란다. 나 예수는 너희 선생이 어렸을 때부터 “잠깐 임시로 편하려고 절대 편하게 살지 말아라.” 하고 가르치며 그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 나 예수의 심정을 알기 바란다. 너희 선생을 확대시킨 섭리사도 그리해야 된다.

④ 너희 영과 육을 더욱 부활시키고, 너희 영과 육이 휴거되도록 생명의 말씀을 준 주 예수다. 샬롬!

<영상8>

- ① 자기 혁명을 일으켜라. <자막> / 초안 5쪽 (다시 그리기)
- ② 조금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내 말을 지켜 꾸준히 끊임없이 행하여라. <자막> / 계속 꾸준히 가는 사람, 가다가 앉아 있기도 하고 땀짓을 하기도 하고, 결길로 가기도 하는 사람
- ③ 해당 영상 (감동적으로 제작)
- ④ 마무리 (예수님 인사)
- ⑤ ‘할 일을 안 하고 편하게만 살면 인생 망한다.’ 자막으로 마무리

<축 도>

지금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최고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마지막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어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과 휴거를 이루게 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메마른 마음에 불같이 뜨거운 감동을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느껴 행하게 해 주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자기 혁명을 일으키며 편안함과 안일함과 태만함을 다 자르고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며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의 줄로 꽂꽂 묶어 끌고 가서 주님의 짝 사랑의 한을 풀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